

## 6/21(화) 느헤미야 묵상 15

### 느헤미야 8:13-18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절이 끝나고 일부 백성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초막절을 모세의 율법대로 철저히 지키게 됩니다.

#### 에스라에게 모여

느헤미야서 8장에 기록된 나팔절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절기와는 달랐습니다. 나팔절에 드리는 형식은 과거와 같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거기에 임하고 참석한 모든 백성들은 울며 감격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고전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또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육체의 소욕이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갈 5: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은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의 나팔절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13절, “그 이튿날 모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나팔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가서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고 알고자 힘쓰게 됩니다. 그 때 에스라와 지도자들이 말씀을 연구하던 중 초막절을 발견하게 됩니다(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는 에스라와 지도자들이 초막절에 대해 전혀 몰랐다가 보다는 그동안 유다 땅에서 이 절기가 멈춰져 있었거나 또는 축소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그들은 초막절을 다시 말씀대로 지킬 것을 다짐하고 결의한 것으로 보입니다(15절상,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유다 백성들은 말씀대로 절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15절하-16절,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들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서 백성들은 토지 소산의 추수를 마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 때를 기억하면서 야외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간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성대하게 초막절을 지킨 행사였습니다(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주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 말씀이 중심이 된 절기

에스라는 초막절 기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성회를 열게

됩니다(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는 초막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행되었음을 보여주고 또 초막절 절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나팔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초막절이 마치는 약 한 달간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개인의 성령충만과 공동체의 영적 부흥의 현장에는 말씀의 은혜가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성령충만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성령 충만의 은혜가 가장 뜨거웠던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현장을 보면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행 2: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행 5:42,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행 12:24,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의 은혜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로 각각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의 영적 부흥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역사해야 합니다(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러므로 말씀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중보해야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로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에 은혜를 받아도 월요일부터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라는는 우리 각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한국을 위한 기도:** 한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지혜와 정의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한국 교회와 신학교들을 지켜주셔서 주의 복음이 한국 땅에 다시 흥왕하고 성령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교회 각 위원회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협력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T국 김흥기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